

【논 문】

일제 창가와 군가에 표상된 만주 제패의 의미*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최 현 식**

Ⅰ 차 례 Ⅰ

- I. 러일전쟁기 일본 창가와 군가의 문제성
- II. 승전과 미개의 땅 만주, 투어리즘과 계몽의 책략
- III.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 그 총력전의 정체
- IV. 만주의 부상, 만주의 실종-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첫째, 러일전쟁기 만주를 대상으로, 둘째, 일본의 철도창가와 군가의 실제와 효과를 검토하며, 셋째, 일본 국내의 총력전 고취를 위한 창가와 군가의 역할 및 그 가치를 살펴본다. 오오와다 다케키의 『만한철도창가』는 일차적으로 이동용 지리교육을 위해 창작된 노래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만한경영’과 그것의 존속을 위한 지리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러일전쟁 시 만주에서 일본군의 승리와 고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만주인의 생활과 풍습을 문명 이전의 전근대적 양상을 널리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 결국 『만한철도창가』는 투어리즘의 산물이기 전에, 일제의 근대문명의 우월성과 식민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예술 기제였던 것이다. 러일전쟁시 일본군의 사기진작과 국민의 총력전 동원, 그를 통한 일본의 만주 제패와 세계 확장을 위해 다수의 군가가 창작, 유통되었다. 군가는 주로 전쟁 현장을 노래했지만, 전몰자의 추모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13).

**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와 기념에도 널리 공헌했다. 특히 『여자군가』는 근대적 일상에 적합한 ‘현모양처’의 이념을 이룬바 총후(銃後)에서 근로하고 싸우는 군국(軍國)의 여성으로 변주하여 동원하는 노래로 기능하였다. 이런 제국의 총력전은 전투 현장이었던 만주에서 만주인의 역사와 삶을 배제하고 왜곡하는 파시즘적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

주제어 : 만한철도창가, 창가, 군가, 일제, 러일전쟁, 만주, 투어리즘, 총력전, 매체

I. 러일전쟁기 일본 창가와 군가의 문제성

식민 상황에 처한 만한(滿韓)을 관돈으로 내걸고 국운을 경합했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1904)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입는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속했던 러시아와 일본은 제국 확장의 길로 양국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만주 점령을 통해 아시아로 진격할 기대로, 일본은 서양 번역과 이입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전략을 넘어 아시아의 맹주로 급전(急轉)할 희망으로 부풀었다.¹⁾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은 자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힘의 우열에 따라 양 교전국과 동맹으로 연계되거나 적국으로 파약(破約)되었다.²⁾ 물론 작계는 대리 전장으로 크게는 식민지로

1)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1945년 8월 패전을 분기점으로 크게 양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패전 이전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공히 불패의 국사(國事), 곧 더욱 힘센 국가들과 싸워 승리한 전쟁으로 기억되고 찬양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 그것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에서 국난을 극복한 방어진쟁으로 새롭게 의미화 되기도 했다. 후자의 입장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 의해 대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김경자 역, 『일본 : '기역의 장'으로서 러일전쟁』, 『역사비평』 2004년 겨울호, 328~333쪽 참조.

2) 러일전쟁기 제국주의 각국의 입장과 관심을 보여주는 풍자화들은 ‘힘의 정치’에 따라 그 세력이 모아지고 분열되는 원리를 흥미롭게 암시한다. 이를테면 일본 여성이 끄는 유모차에 딸랑이를 들고 탄, 또는 맹인용 안경을 쓴 채 열강의 꼭두각시로 돌아나는 조선 선비의 모습,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거인 형상의 러시아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서는 왜소한 일본군의 모습, 군복 입은 원숭이(일본)가 팔 부러진 곰(러시아)의 코에 코뚜레를 꿰고 돌아다니며 손님(구미)들에게 사례비를 받는 서커스 공연장의 모습 등을 보라. 자세한 내

할양될 위기에 처한 만한(滿韓)의 목소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은폐되거나 억압되었다. 이토(異土)를 두고 남의 땅에서 벌인 그들끼리의 전투, 러일전쟁은 이것이 문명의 원리와 규약으로 승인되던 당대 만국공법의 근본임을 총탄과 핏물의 이수라장으로 증례했던 것이다.

‘힘의 정치’는 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문명과 군사력에 의해서만 작동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국민들의 일상적 편익과 미학적 취향의 문제를 전쟁의 기술과 서사로 입안, 제어할 줄 안다는 점에서 가공할만한 기제였다. 러일전쟁은 동서양의 합전(合戰)이기 전에, 선진 문명을 뒤늦게 학습한 ‘늦된 아이들’이 그 수용과 변용 정도를 자랑하는 일종의 박람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흥내쟁이 원숭이나 기모노 입은 여성으로 표상되곤 했는데, 그 용렬한 타자성 속에서 만한(滿韓) 경영이나 서양과의 동등성 확보라는 ‘황국’의 목표는 꽤나 요원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비록 그것이 전쟁에 의존되었다 해도, 일상적 기술의 박람회는 제국의 팔루스를 신민에게 기입하고 그 받기를 도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러일전쟁이 기술의 총력전이자 총동원 체계였음은 인력 및 장비 수송과 관련된 각종 철도와 기선, 그리고 전함과 포대의 위용에서 뚜렷하다.³⁾ 이 기술의 힘과 유용성은 전쟁 당사자(戰線)는 물론 그것을 떠받치는 후방의 신민(銃後)에게 내면화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기술문명의 정도는 승리와 패배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전쟁에서 국민의 병사화가 강조되는 것도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열이 내려지는 까닭의 시종이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겠다.

‘전선총후’의 총력전에서 다른 공간에 위치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유력한 방법은 선전과 감염의 효과가 뛰어난 대중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전투 현장을 시시각각 전달하는 각종 호외와 신문, 그

용은, 석화정, 2007, 『풍자화로 보는 러일전쟁』, 지식산업사, 여기저기 참조.

3) 일레로 『滿韓鐵道唱歌(만한철도창가)』는 표지로 노란색 바탕을 배경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기관차(본고 II 장 [그림 1] 참조)를, 창가 서두의 사진으로 ‘일본해 대해전(大海戰)’에 투입된 전투함(기선)을 취하고 있다.

리고 격절된 양자의 친밀감과 애국심을 동시에 고취하는 그림엽서(여기 인쇄된 전쟁 관련 사진과 그림) 등은 러일전쟁기 매체 활용을 대표한다. 당시 나날이 진화하던 복제예술, 특히 사진술과 인쇄술, 출판술의 발달은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부감함으로써 ‘전선’의 현장성과 그를 향한 ‘총후’의 동일성을 결정적으로 배가시켰다. 사실을 말하건대, 이를 통한 전쟁(공간)의 동시성 확보는 국민의 단결과 전쟁 동원, 그에 의지한 죽음의 비극과 죽임의 원죄를 괄호 치는 전쟁의 합리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의의 실천이 아니라 절대폭력의 구조화에 가까웠다.

물론 전쟁의 승리자 쪽이라면 대중매체의 역할은 전쟁 당시의 활황으로만 종결되지 않는다. 각종 기념비와 기념일, 기념식의 제도화와 내면화에서 대중매체의 계몽과 선전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와 현재 할 것 없이 여전히 각종 기념식에 동원되는 국민, 특히 이동들의 실상은 기억의 역사화와 현재화가 국민의 통합과 그 징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는 러일전쟁 후 각종 기념 장치의 제도화와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며,⁴⁾ 이를 통해 승리의 서사와 희생의 윤리를 전쟁 담론의 핵심으로 전범(典範)화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지점까지의 ‘전쟁의 국민화’는 국가 주도의 계몽서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이 짙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성이나 취향과 연관된 기제의 개발과 확장, 즉 ‘전쟁의 심미화’ 사업과 전략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이를 통해 살육의 현장은 명랑하게 조망해 볼만한 추억의 공간으로 전유되며, 전사자의 몸값은 우러러볼만한 애국자의 그것으로 등가화 된다. 기술문명과 대중매체가 세련되게 결합되고 연동된 실례로 러일전쟁을 전후한 일본 창가(唱歌)와 군가(軍歌)⁵⁾를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

4) 봉천전투의 날을 육군기념일(3월 10일)로, 일본해 해전의 날을 해군기념일(5월 2일)로 정하고, 여순항 기습 때 전사한 히로세 다케오(廣瀨武夫)를 군신(軍神)으로 추앙하여, 군가 『軍神廣瀨中佐(군신히로세중좌)』를 제작·유통시키고 동상을 건립한 일들이 그 예를 대표한다.

5) 창가로는 『만환철도창가』를, 군가집으로는 『일로전쟁기군가집』을 주목한다. 자세한 서지와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있다. 공히 시가(詩歌) 형식에 해당하는 양자는 전쟁의 대중화 및 상품화⁶⁾와 연동되어 있어, 벤야민이 말했던 파시즘의 예술화와의 깊이 상관된다.

먼저 군가의 경우다. 군가는 군인의 전투력 강화, 이를테면 애국심과 집단성 강화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선 생산되고 소비된다. 『日露戰爭期軍歌集(일로전쟁기군가집)』의 군가들, 이를테면 『征露軍歌(정로군가)』, 『日本陸軍(일본육군)』, 『日本海軍(일본해군)』 따위는 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모자람 없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각종 군가들은 군영(軍營)을 넘어 일상에서도 널리 가창되거나 독서가 권유되었다. 『일본육군』, 『일본해군』 표지에서 “국민창가(國民唱歌)” 명시, 러일전쟁 전반을 다룬 장편창가 『大捷軍歌(대첩군가)』와 총후에서 불렀을 법한 『女子軍歌(여자군가)』의 군가집 게재가 뚜렷한 물증에 해당한다. 요컨대 각종 군가들은 총후의 국민을 (간접 체험의) 전장으로 소환하는 한편 그림으로써 친황 중심의 국가주의와 역사관, 심지어는 그것의 일상에의 투사와 내면화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⁷⁾

이상의 전쟁 서사와 감각화가 가장 세련된 형태로 대중화되고 상품화 된 것이 『만한철도창가』(1906)다. 이 작품은 시모노세키에서 출발, 부산과 경성, 평양을 거쳐, 만주의 남만철도 노선을 빠짐없이 경유한 후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에 도착하는 여정을 노래한다. 제국의 여행자가 가질 법한 식민지의 원시적 풍경과 후진적 관습도 관찰의 대상이지만, 역시 핵심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관련된 전사(戰史) 및 전적(戰跡)의 확인과 회고, 그에 관한 복합적 정감의 표출이다. 전쟁의 기억과 기념이 투여리즘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의 심상지리 확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엿보

6) “기념엽서·기념비·광고문건·영화·문학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서술 구조”(박진한, 266쪽)를 중심으로 전쟁기념의 상품화와 대중화 전반의 논리를 검토한 글로는 박진한, 2006, 「일본의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이 유익하다. 이후 서술의 몇몇 지점은 박진한의 논의를 참조했거나 거기서 계발 받은바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글에서 거론하는 창가 및 군가 제목들은 일본어 발음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기서는 한자 독음과 이해 등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텍스트가 처음 등장할 때 제목 옆에 한국어 읽기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 제목으로 약칭한다.

게 하는 서사적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그 창작과 향유에서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본 창가와 군가가 발생론적 기원과 형성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미학적 대목과도 접속된다는 점에서 꽤나 문제적이다.⁸⁾

더군다나 이 작품은 문부성 검정을 완료한 “고등소학교 창가과 아동용” 교재로 널리 향유되고 소비되었다. 『만한철도창가』 소재 각종 전쟁사의 교육과 전달, 가치화에 교사와 부모가 개입하기 마련임을 감안하면, 이 텍스트는 아동용 노래와 교과이기 전에 예비 황군 교육을 위한 일종의 군가이자 정치 팸플릿에 오히려 가깝다. 표면에서는 아동용 지리교육 도서로, 투어리즘의 문학적 표현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심층에서는 기억과 기념을 통한 전쟁의 숭고화, 그 효과로 국가정체성과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침략적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한철도창가』의 양가성. 여기에 계급과 지역, 이념과 정서를 초월한 신민의 일민(一民)화를 수행하는 한편, 자국 병사의 죽음은 영웅적 희생으로, 적병의 그것은 패전의 물증으로 사물화하는⁹⁾ 전쟁예술로서 『만한철도창가』의 간교한 본질과 전략이 숨어 있다.

본고는 이상의 관심과 내용을 ‘만주’를 중심으로 다룬다. 『만한철도창가』가 통과한 조선 여행의 사정과 식민화 미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육당의 『경부철도노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미 서술한바 있다.¹⁰⁾ ‘만주’가 그 잔

8) 이에 대해서는 『鐵道唱歌(철도창가)』, 『만한철도창가』, 『일본육군』, 『일본해군』을 작사한 오오와다 다케키(大和田建樹)를 소개할 때 상술한다. 다만 여기서는 『만한철도창가』 뒷표지에 러일전쟁의 보고와 승리를 다룬 군대창가 『奉天占領唱歌(봉천점령창가)』, 『旅順陷落軍歌(여순함락군가)』, 『대첩군가』 등이 광고되어 있음을 알려두는 정도로 그친다. 해당 광고 사진은 최현식, 2010,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 - 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화사연구』 43, 민족문화사학회, 192쪽의 ‘[그림 1] 『만한철도창가』 광고’ 참조.

9) 이렇듯 타락한 사생관은 전쟁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한편 전쟁의 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가뭇없이 증발시킨다. 이는 국민들이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연민은 차치하고라도 만세의 외침과 더불어 침묵이 생의 원리일 수 있음을 승인하는 ‘트라우마의 물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쟁 관련 ‘트라우마의 물화’에 대해서는 전진성, 2009, 『서론 :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30~40쪽을 참조했다.

여분인 셈인데, 물론 『만한철도창가』, 『대첩군가』, 『征露軍歌集(정로군가집)』¹¹⁾ 『平壤包圍攻撃(평양포위공격)』 등에 러일전쟁의 또 다른 현장으로 인천과 평양이 등장한다. 『만한철도창가』를 제외한 작품들은 전쟁 자체를 중심에 둔 까닭에, 인천과 평양의 풍광 및 풍물, 문화 유적과 생활 관습에는 거의 무관심하다.¹²⁾ 이에 비한다면, 러일전쟁의 주전장 ‘만주’는 전쟁 서사와 현장의 제시, 그 기억과 역사화에서는 물론, 식민화에 처한 ‘만주’ 일대를 투사하고 타자화하는 일제의 시선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꽤나 풍요롭고 흥미로운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지배자의 시선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당시 만주와 유사한 처지였던 조선 현실을 객관화하는 어떤 계기와 방법의 획득에 적잖이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본고는 조선과 만주의 전쟁 경험과 식민화 와중을 압도적 환호와 소수의 회의로 응시하던 내지 일본인들의 시선과 담론을 추적하는 작업에도 글쓰기의 일부를 할애할 것이다. 이후 ‘만한 투어리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할 그들에게서 우리는 ‘만한’의 토인과 문명한 일본을 차이화하는 분리의 기술을 미리 엿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승전 속에 은폐된 개별 전사자의 망각과 추방, 바뀐 말해 천황의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역전된 죽음의 기념이 전쟁의 폭력성과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성되어가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만한’의 정복과 경영이 동아시아의 공영과 해방의 출발이라는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심리적 토대를 읽을 수 있다면, 과연 무리한 가설의 설정일 것인가.

10) 최현식, 2010,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 - 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학사연구』 43, 민족문학사학회.

11) 『만한철도창가』에서 러일전쟁의 회상과 감격은 인천해전과 평양 점령을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에 비해 『日露戰爭 大捷軍歌(일로전쟁 대첩군가)』의 「仁川海戰(인천해전)」과 『정로군가집』의 「仁川旅順大海戰(인천여순대해전)」에서는 해전 자체가 서사와 감격의 핵심을 이룬다.

12) 『만한철도창가』에서 ‘인천’은 일본 국민 13,000명 체류, 러일전쟁 초기 적함을 침몰시킨 포구, 업무 마친 뒤 놀러가는 ‘일본공원 월미도’가 존재하는 곳(19~21년)으로, 평양은 청일전쟁 승리의 장소로 호명, 기념되고 있다.

II. 승전과 미개의 땅 만주, 투어리즘과 계몽의 책략



[그림 1] 만한철도창가 표지

『만한철도창가』는 창가·군가 전문 출판사 금항당서적(金港堂書籍)에서 1906년 8월 24일 출간되었다. 같은 해 12월 6판이 발행될 정도니 러일전쟁의 후광이 대단했다. 노란색 표지와 예서체의 한자 제목, 붉은 침목과 연두색 레일을 달리는 푸른 색 테두리의 검은 기차, 연통에서 뿜어지는 오선지 위 음표, 곧 음악화된 연기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총 60연(1~34면)으로 구성된 7.5조 창가 본문 앞에 만한철도 노선,¹³⁾ 아동용 창가라는 문부성 검인정 사항, 편자(編者) 와타나베 칸조(渡邊管造)의 발간사, 창가 악곡(2/4박자, 天谷秀 작곡)이 놓여 있고, 창가 말미에 서지가, 뒷표지에 러일전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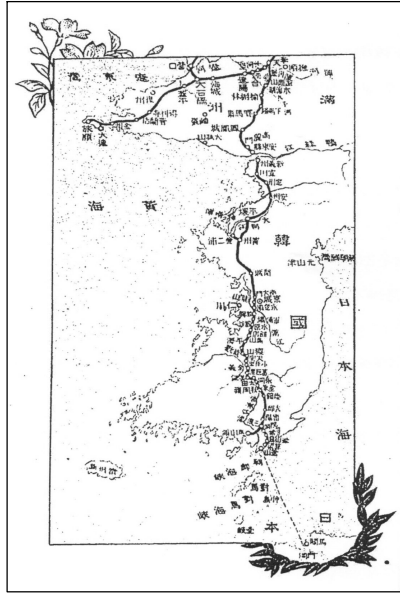
풍년 기원 관련 창가와 군가 광고가 실려 있다. 서책의 형식과 디자인, 구성만 보면, 일본 철도 연선의 풍경과 산물, 정취를 노래했던 『철도창가』(1900)의 후속편쯤으로 여겨진다. 양자는 국민, 특히 아동의 지리교육을 목표로 오오와다 다케키(1857~1910)가 작사했으며, 서사와 정서의 구성 및 표출이 여행기, 곧 투어리즘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근친성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표면의 지리교육과 여행의 안내와 권유, 그것의 대리충족 만으로 발간 4개월 만에 6판 돌파라는 인기의 비결을 대뜸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만한철도창가』의 성황을 얼마간 밝히려면 작사가 오오와다의 이

13)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누락된 철도여행 노선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2] 만한철도노선’ 참조. 그리고 『만한철도창가』 상의 부산에서 대련에 이르는 철도 연선과 각 역명에 대해서는 구인모, 2009, 『일본의 식민지 철도여행과 창가』, 『정신문화연구』 116, 200쪽 주석 9) 참조.

력과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의 국민 정서, 제국의 심장지리 확장에 연동된 투어리즘의 대유행, 그것을 ‘만한(滿韓)경영’의 의지와 욕망으로 번역한 제국의 내셔널리즘 전략을 함께 살펴보아 마땅하다.

먼저 작사가 오오와다다. 그는 개인의 시적 이력이나 일본 창가의 기원과 전개에서 매우 문제적인 인물이다. 그 핵심은 “신체시인으로서는 이류였으나 메이지(明治) 창가에서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일인자였다”는 문학사적 평가에 집약되어 있다. 일례로 그는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



[그림 2] 만한철도 노선

마스 캐럴』 번역 과정에서 애절한 감상(感傷) 충만의 「가여운 소녀」를 작사하는 등 근대 전환의 시대상황과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다.¹⁴⁾ 하지만 그의 재능은 『철도창가』, 『散步唱歌(산보창가)』, 『故郷の空(고향하늘)』 등의 창가와 『일본육군』, 『일본해군』, 『黃海海軍(황해해군)』, 『日本海海戰(일본해해전)』 등의 군가 작사에서 만개했다. 양자 공히 개인의 감성보다는 민족정체성과 국민의식의 집단적 심화와 발현에 적합한 노래의 형식들이다. 전자가 민족적 내포의 심화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제국 외연의 확장과 보다 밀접하게 접속된다. 그러나 그 운동의 방향과 상관없이, 양자는 자민족을 동일화하고 타자와의 차이화를 예민하게 계상하는 자기규정의 잣대로 명랑하게 작동되

14) 小川和佑, 2005,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142~144쪽. 이 대목은 일본 및 조선 창가의 기원과 전개가 찬미가 못지않게 군가의 유행과 소비에 빛지고 있음을 암시하는바, 일본에서는 창가와 군가의 친연성이 대체로 인정된다. 일본 창가에 빛진 조선의 계몽창가와 이후 항일유격대의 군가가 이런 친연성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사실로 인정된다.

었다. 그 계몽과 감염의 효과는 제국주의로의 진입 문제에서 결정적 위기가 자 기회였던 러일전쟁의 현실에서 가장 극대화되었음을 물론이다.

러일전쟁은 ‘제국에의 행보’라는 어떤 책의 부제¹⁵⁾가 암시하듯이, 일본의 서민에게 상실과 공포, 비애의 정서를 압도하는 충성심과 애국심, 승리의식 확장의 장이자 계기였다. 물론 전후의 실업 심화, 전몰자 문제 등과 같은 승리의 비애가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제국의 승리와 확장을 고려하면 은폐되고 무시될만한 성질의 것이었다. 저 익찬(翼贊)의 정서는 따라서 당대에 기념되고 소비되기보다 후대의 유산과 교육 장치¹⁶⁾로, 다시 말해 제국의 심장 지리 확장의 장치로 더없이 적합했던 것이다.

이것이 서둘러 창가와 군가의 대가 오오와다가 『만한철도창가』 창작에 나선 근본적 이유다. 그 핵심은 편자의 “일로전쟁은 우리 제국의 신기원” “만한의 경영은 신일본의 유일한 국시” “오늘의 소년들에게 만한의 지리에 정통하게” 하며 “대봉의 큰 뜻을 세우게 하”려는 말¹⁷⁾ 따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점, 저 창가를 아동용 지리교과와 투어리즘, 창가의 형식¹⁸⁾이 승리에 도취된 국민의 내면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한편, 제국 확장과 미래 약속을 위한 신민의 병사화와 만한 정복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 계몽하기 위한 ‘잘 표현된(노래와 사진술 모두에서) 군사술’로 판정해도 괜찮은 핵심 요인이다. 편자 와타나베의 말대로 그것을 “평이하고 명쾌하여 풀벌레 소리와

15) 부제와 아래 내용 일부는 大浜徹也, 2003,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 - 帝國への歩み』, 刀水書房, 여기저기 참조.

16) 당시 일본은 수신과 국어, 창가 교과 등을 통해 러일전쟁의 영웅 히로세 다케오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공적, 러일전쟁에 참가한 일반 병사의 미담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 교육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리타 류이치, 『일본: '기억의 장'으로서 러일전쟁』, 330쪽.

17) 일본은 1906년 러일전쟁 직후 문부성과 육군성 공동 주최로 ‘만한’수학여행을 기획, 실현하여 일본 전국의 학생들에게 대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임성모, 2006,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 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주의』, 일본사학회 편, 『일본역사연구』 23, 96쪽). 여행하는 아동(나아가 학생과 국민)에 보다 적합한, 여정의 기억과 ‘만한’의 정보, 풍물의 감상을 모범적으로 예시하는 『만한철도창가』의 제작과 유통은 그런 점에서 필연적이었다.

18) 직진하는 기차와 세세한 지지(地誌), 합창용 창가와 후퇴 없는 진격, 정확한 작전지도, 충성과 전쟁 격려의 군가는 그 이미지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화창”하는 노래로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사자가 오오와다 다케키였음을 우리는 그의 시적 이력에서 벌써 확인한바 있다.

이렇듯 『만한철도창가』는 제국(의식)의 확장과 내셔널리즘의 심화로 구성된 철로와 그 연선을 거침없이 또 주도면밀하게 질주했다. 그 핵심 여정을 구성하는 ‘만한’의 지위와 존재를 묻는 일은 당시 ‘일본적인 것’의 실질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된다. ‘만한’은 러일전쟁 당시 완전히 식민화된 상황도 그렇다고 ‘일본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구별된 현실도 아니었다. ‘만한’은 타자/이토이되 점차 ‘일본적인 것’ 내부로 수렴, 흡착될 이웃/지방으로 변두리화되는 반(半) 동일성의 대상이었다. 제국의 ‘만한’ 경영(정복)은 그러니 우월한 존재감과 따뜻한 시혜의식을 기관차 앞머리의 선전 구호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만한철도창가』에서 전자는 ‘만한’에 대한 우월한 군사력과 기술문명의 자랑으로, 후자는 ‘만한’의 미개 문화에 대한 멸시와 동정, 계몽에의 의욕으로 표상되었다. 특히 후자는 이국적인 것을 향한 흥분과 설레임, 두근거림 역시 동반함으로써 ‘만한’을 향한 새로운 감정과 생명력 발견의 토대로 진화하기도 한다.¹⁹⁾

그러나 역시 ‘신일본’ 유일의 국시로서 ‘만한경영’의 선포와 아동(국민)에의 선전을 목적한다면, 제국의 확대와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의 논리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제국과 식민지의 (과거)문화는 선택과 배제의 교묘한 술책을 통해 서열화가 수행되지만, 기술문명과 힘의 논리는 제국 유일의 것, 다시 말해 도시문명과 군사(기술)력에 의해 주장될 수 있을 따름이다. 『만한철도창가』에서 인간의 기초적 삶과 관련된 문화의 기표보다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문명의 기표가 훨씬 승한 이유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중국·일본과 지속적 협력 및 갈등의 역사를 살아온 조선과 달리, 그 변방에 놓였던 만주족은 청(淸)조의 건설과 한(漢)족에의 동화, 그에 따른 귀환 불능의 사태에 빠져들었으므로 옛 강토 만주를 ‘주인 없는 토지’²⁰⁾로 세계만방에 개방하고야 말았다. ‘만주’의 텅 빈 기표로의 확산이야

19) 서기재, 2011,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162쪽.

말로 러일전쟁 발발의 실질적 토대이자 일제 말 심상지리 확대의 주요인이었다 하겠다.

만주 문화를 향한 제국의 시선은 얼마 뒤의 몫이므로, 여기서는 문명의 정점으로서 군사력과 그 전적의 기념 및 기억의 서사와 이미지를 먼저 읽는다. 천황과 제국을 향한 충성의 념(念)과 그 실천 기술로서의 전쟁, 그것은 특히 1930년대 후반 전면화 되는, 아동 대상의 ‘소국민’ 육성을 어김없이 앞세웠다. 아동들의 ‘만한’경영 예비와 삶의 습득은 최후에는 천황의 총량한 병사로의 성장과 봉공(奉公)으로 나아가게끔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의 권위와 나라의 자랑을 드높이고 삶의 모범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승리와 고투, 전몰의 영웅과 병사들을 골고루 기억하고 기념하며 숭고화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불패의 국사’로서 러일전쟁은 만주 일대를 영웅, 그 최고 형태로서 ‘군신’(軍神)의 지략 및 희생의 장(場)으로 새롭게 가치화했다. 이를테면 러일전쟁 영웅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다음을 보라.

40. 오카자키여단이 고전하여

그 이름을 남긴 오카자키산 보며
건너는 태자하의 물소리도
승전가거나 우리 노래겠지

41. 오쿠, 노즈, 쿠로키 삼군이

힘을 모아 빼앗은
요양 시가 여기저기에
남은 것은 적의 보루

—『만한철도창가』, 23쪽.

40~41연 상의 영웅들은 ‘압록강’을 “열풍파죽(熱風破竹)의 기세”로 건너가, 구련성(九蓮城), 합마당(蛤蟆堂), 사하(沙河), 요양(遼陽), 봉천 등에서 획기적 승리를 거둔 자들이다. 산문적 기술이 아닌 만큼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소개나 정보 제공은 없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은 생생한 전투현장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수십의 적포 노획하여²¹⁾/대부분 전멸시켜버린/철

20) 고미네 가즈오(小峰和夫), 2013, 「만주라는 땅을 둘러싼 역사」,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박선영 역,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44~46쪽.

21) ‘합마당 전투’를 촬영한 [그림 3] 위로 ‘구련성’과 ‘합마당’을 노래하는 창가가, 그 위로 ‘구련성’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러시아군에게서 빼앗은 수십문의 전리포(戰利砲) 사진

전(血戰) 저명한 합마당(蛤蟆堂)/그곳도 여기서 멀지 않으리”로 노래함으로써 ‘백승불패’의 전투를 영웅화하는 것이다.



[그림 3] 합마당(蛤蟆堂)에서의 일러 격전(17쪽)

이와 같은 승전의 서사는 아동과 청년을 전선(戰線)의 미래로 자랑스럽게 파견하는 직립의 기차길이자 그들 가족과 이웃을 충후의 장으로 떳떳하게 불러내는 호루라기 소리 같은 것이다. 『만한철도창가』를 높이 부르며 조선과 만주의 전장을 기쁘게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만한 경영’의 포부를 군인의 길과 자연스럽게 합치시켜 갔다고 추측한다면 과연 과장일 것인가.

그러나 전쟁 영웅은 승전만이 아니라 희생과 패배, 곧 죽음과 상실에 의해서도 탄생할 수 있으니, 노기(乃木) 장군의 전투와 히로세 중좌의 전사(55연)가 그 예이다.

- | | |
|---|--|
| 55. 노기장군이 고전(苦戰)한
명예의 땅은 여기
히로세 중좌가 전사한 | 56. 항구를 봉쇄하여
공을 세운 결사의 용사
씩지 않을 영예는 세세토록 |
|---|--|

이 배치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만한철도창가』 17쪽 참조.

명예의 바다는 여기

노철산과 함께

—『만한철도창가』, 32쪽.

메이지 시대 군인정신을 표상하는 노기는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여순 203고지 전투의 승전자보다는 같은 싸움에서 전사한 두 아들의 아버지라는 비극적 사태²²⁾로 인해 울컥한 연민과 열렬한 환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히로세 역시 여순항의 러시아 함대 공격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사후 그가 ‘군신’으로 추앙된 까닭은 임전무퇴와 희생정신, 그러니까 침몰하는 함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하를 구하러다 총탄에 쓰러진 무모한(?) 전우에 때문이었다.²³⁾ 이 무용담, 아니 희생담은 부하 이전에 천황의 병사를 구하려는 숭고한 상징행위로 기록되고 승화될만한 요소들로 가득했던 것이다. 현인신 천황의 그늘 아래 위대한 군신(軍神)으로 영생케 된 까닭이 여기 있다.

승전의 기념 못지않게 상실과 죽음의 기억이 전쟁에서 중요한 까닭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승전 아래의 죽음은 희생을 넘어 승전의 토대로 승인되고 가치화될 만한 성질의 것이다. 승전비에 전몰자 성명의 각인이 더 우세한 것도, 그들의 피가 일종의 생명수로 널리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²⁴⁾ 고전(苦戰)의 여러 기억과 전몰자의 추모(“세키야(關谷), 다치바나(橘) 두 용사가/눈이 부시도록 명예롭게 전사한”²⁵⁾)가 승전의 노래 『만한철도창가』 곳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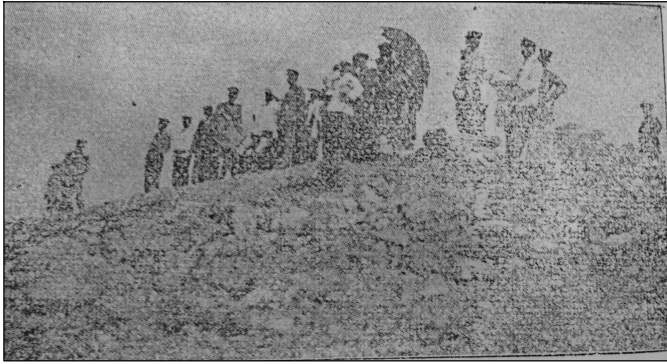
22) 『東京朝日新聞』, 1906년 1월 15일. 여기서의 박진한, 「일본의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 279쪽 참조.

23) 코모리 요이치에 따르면, 히로세의 군신 추앙은 여순항 봉쇄작전 실패를 진화(鎮火)하는 한편 국민과 병사들에게 전쟁 의지를 다시 불어넣기 위한 술책과 관련된다. 작전 실패에 따른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이야기 수법을 사용하여” 죽음을 무릅쓴 부하 구조행위로 가치화함으로써 그 실패를 만회하고 역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만들어진 서사’, 곧 신화(神話)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小森陽一, 2004, 『日露戦争の記憶, 記憶の中の日露戦争』,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201~211쪽.

24) 일본의 한 연구자는 러일전쟁기 전사자 처리와 묘지 조성 문제, 각종 위령탑과 충혼비 건립 문제 등을 ‘위령의 정치학’으로 명명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정략성과 이념성을 적절히 드러낸다. (原田敬一, 2004, 『慰靈の政治學』,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25) 비록 전사자가 문자 형식으로 거론될지라도 『만한철도창가』나 전쟁기념엽서에서는 전사

박혀 있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병사, 곧 젊은 국민들이 전사한 ‘만주’는 승전의 기억과 기념이 존재하는 한 결코 이토(異土)나 ‘빼앗긴 땅’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림 4] 203고지 (31쪽)

오히려 ‘만주’ 곳곳, 이를테면 ‘부두산’(歪頭山)이 “무훈의 명예”(38연)로, ‘태자하’(太子河)의 물소리가 “개신가”(40연)로 명명되는 현상에서 보듯이, ‘만주’는 일본의 영원한 승전지로, 따라서 충성과 감격이 울물한 충만한 영토로 자연화·심미화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²⁶⁾ 4만세기 뒤 왕도낙토를 내세

자와 부상자, 패전 상황과 같은 비극적 장면은 거의 피로(披露)되지 않는다. 이것은 충격에 휩싸일 내지인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그럴 개연성은 종군기자의 사진집이나 화보에 아군과 적군, 스파이를 막론하고 참혹하게 죽은 자들의 사진이 적잖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된다.(井上祐子, 『日清·日露戰爭と寫真報道』, 吉川弘文館, 2012 여기 저기 참조). 『만한철도창가』의 경우, 승전 기억과 기념을 위한 조치겠지만, 각종 전리품과 승전 후의 풍경([그림 4] 203고지’ 참조), 진군 과정 및 공격준비상황 따위를 포착한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런 방식의 사진 촬영과 배치는 박진환(270~271쪽)의 지적처럼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은폐하며 그림으로써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긍지와 충성심이 더욱 배가된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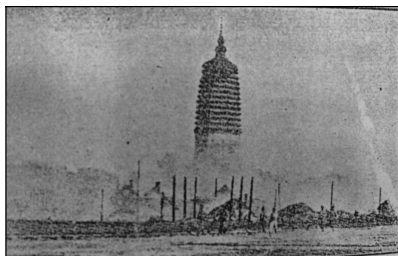
26) 이를 함축하는 명명이 “전적(戰跡)”이라는 테마파크”이다. 일제는 “일로전쟁, 대승리”라는 명분을 확장 심화하기 위해 대중매체, 교과서, 대중예술을 전적의 전파자로 끊임없이 소환했다. 또한 러일의 격전이 벌어진 만주 곳곳에 승전탑과 더불어 위령비, 충령탑 등을 건립했다. 먼 땅에 존재하는 승전의 기억과 기념, 전몰자의 애도를 위한 각종 장치들은 군·관 주도의 ‘만한’수학여행과 관광을 통해 ‘일본적인 것’의 절대성과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내부화하는 계몽의 기획으로 성공리에 안착했다.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川

운 ‘만주국’이 그것의 정치적 현현태라면, 현재 흔히 ‘만주의 추억’으로 불리는 회고의 감각은 그것의 심리적 반영물이라 할 만하다. ‘만주’가 일본 내지로 수렴되는 외지로 여전히 살아 있으며 또 그들의 시좌가 여순 203고지 점령 직후(「그림 4」 203고지)의 높이에 아직도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연유에서 말미암는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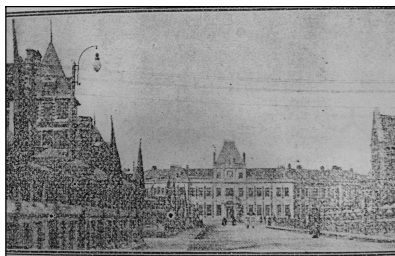
그러나 주의하라. 우리가 보아온 것은 엄밀히 말해 전장 ‘만주’이지, 그곳 전통의 자연풍광과 문화적 풍물, 삶의 습속과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민낯의 공간 ‘만주’가 아니다. 만약 함선과 대포, 육군의 장총과 수병의 구명복만으로 가득한 ‘만주’라면, 그곳에 관한 경영지식과 지리·문화정보의 획득에서 궁핍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행’의 흥취와 이토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제국(신민)의 우월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지(內地) 철도여행에서 경험한 풍속·문화 관광의 변형적 반복과 재현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강대국의 식민지나 약소국 관광은 그것들 고유의 원시성과 자연성을 발견하고 호흡하려는 욕망에서 기획되고 실현된다. 이런 이국정서에의 지향과 충족은 그러나 언제나 저들을 야만과 무지의 토인(土人)들로 타자화하고 서열화하는, 간교하며 폭력적인 문명의 책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村濤, 「『戰跡』というテーマ・パーク」,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217~218쪽 참조.

27) 흥미롭게도 러일전쟁의 승전과 노기장군, 히로세 중좌, 다치바나(橋) 중좌(요양전투에서 전사) 등 영웅적 군인에 대한 찬양과 기억은 식민지 조선 아동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화되었다. 『普通學校唱歌書(보통학교창가서)』(4학년, 조선총독부, 1920)에는 「水師營の會見(수사영 회견)」(노기장군과 러시아 스테셀 장군의 회담. 러시아의 항복과 패전이 최종 결정됨), 「日本海海戰(일본해해전)」이, 『初等唱歌(초등창가)』(조선총독부, 1939~1941)에는 「廣瀨中佐(히로세 중좌)」(4학년), 「日本海海戰」(5학년), 「水師營の會見」(6학년)이, 『初等音樂(초등음악)』(조선총독부, 1943~1944)에는 「廣瀨中佐」(4학년), 「橋中佐(다치바나 중좌)」(5학년), 「日本海海戰」 「水師營の會見」(6학년)이 수록되었다. 식민지의 아동 역시 ‘소국민’과 미래의 황군(皇軍)으로 암암리에 소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상의 창가는 김순전 외, 『초등학교 창가교과서 대조번역』(상)·(중)·(하), 제이앤씨, 2013 참조.



[그림 5] 요양의 높은 탑(24쪽)



[그림 6] 대련시(30쪽)

이와 같은 투어리즘의 이상한 역설을 깨뜨리기 위해 ‘토인’을 분석하고 지배하는 데 유용한 지식 장치 인종학·풍속학과는 비교적 무관한 두 사진을 주목해 보자. 『만한철도창가』 소재 풍경 사진들은 그와 관련된 공간/장소를 간단히 소개하는 노랫말과 함께 배치되곤 한다. 여행자에게 해당 공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상 깊게 제공하려는 의도였다.²⁸⁾ [그림 5] 요양의 높은 탑’ 사진이 배치된, 요양(遼陽) 관련 가사는 앞서 제시한 41년 [오쿠, 노즈, 쿠로키 삼군이 (...) 요양 시가 여기저기에 (...)]에 담겼다.²⁹⁾ 잠시 뒤의 단락에 대련(大連) 관련 노랫말만 제시하는 까닭이다.

두 사진은 언뜻 보아 만주족 제 국가의 위상과 영화를 요양의 고탑(高塔)과 변화한 대련시를 통해 객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인상은 노랫말을 함께 읽을 순간 일종의 착시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우리에게서 요동(遼東)으로 익숙한 요양(遼陽) 광우사(廣佑寺) 백탑(白塔, [그림 5]의 탑)은 물경 800년 전 금나라 때 건축된 전탑(轉塔)으로 높이가 71미터에 이르는 8각 13층탑이다. 수차례 중국과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만주족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와 건축술을 보기 좋게 반영하는 유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쟁 후 여기저기 “적의 보루”만 남았다는 감개는 러시아와 일본에 정복된 요양의 굴욕을 충실히 환기한다. 그러니 요양 고탑은 여러 차례에 거친 만주족의 패배와 몰

28) 이에 반해 인물 사진은 그 장소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 ‘토인’의 후진적 풍속과 삶을 일반화·전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29) 요양 등장 가사는 23쪽에, 요양 백탑 사진은 24쪽에 배치되었다.

락은 물론, 시나브로 중국에 습합되어간 청(淸)의 영화와 굴욕을 함께 상징하는 잔여적 건축물인 것이다.

51. 나아가기도 빨리 나아가는 52. 대련만 머리에
기차의 창문 왼쪽에 보이는 러시아 손으로 만들어진
매우 빼어난 풍경의 화상도 규모 장대한 다루니(靑泥窪)는
무역 변화한 대련만 지금은 대련 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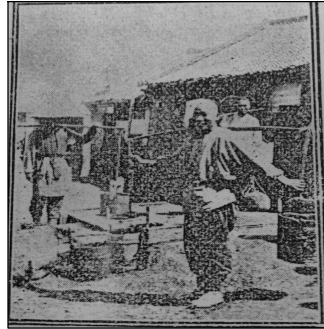
—『만한철도창가』, 29~30쪽.

이런 관점과 해석은 변화한 대련 시가지(그림 6)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 조차지로 개방되어 근대문명의 성취에 한층 다가섰으나, 이제는 일본의 군사기지이자 휴양지로 식민화된 굴욕의 땅이 대련인 것이다. 더군다나 저 변화한 시가와 건축물은 문명의 러시아인에 의해 개발된 것이고 이후 일본에 의해 더욱 개량되고 확장될 운명의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두 사진과 해당 가사는 ‘만주’의 호화로운 영화가 텅 빈 기표로 빠르게 점멸(漸滅)되어갈 것이며 그 몰락과 굴욕이 실질적 기의로 신속히 기입될 것임을 암시하는, 식민주의적 문자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토인’으로 곧잘 멸시된 만주족을 향한 일제의 식민주의적 시선은 그들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들에 뚜렷하다. 사진술과 그 복제술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식민지의 야만성과 미개함을 사실로 포착하고 널리 선전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연출 혐의마저 짙은 제국의 대(對) 식민지 만화경들, 이를테면 낙후한 식민지인의 인종적·풍속적·문화적 특질을 부감하는 사진들은 그 자체가 서구문명의 우월성과 권력성, 인종·민족차별과 식민 지배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비극적 기제였다. 러일전쟁을 통해 서구의 말미에서 동양의 맹주로 올라선 일제의 사진술도 여기서 멀지 않았다.



[그림 7] 만주의 가을(27쪽)



[그림 8] 만주풍속(1)(21쪽)

이러테면 [그림 7]과 [그림 8] 속의 만주인을 보라. 그들의 달콤한 휴식이나 재미난 놀이 모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줄근한 치파오(旗袍)를 걸치고 변발한 채 가을걷이를 하거나 물통을 나르는 쿨리(苦力)들로 인지되고 포착될 뿐이다.³⁰⁾ 근대식 ‘하이칼라(high collar)’에 위생품을 제대로 갖춘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에게 이들은 인종적 야만성과 문화적 낙후성, 그로 인한 경멸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던져주는 충격적 군상(群像)들이었을 것이다. 원인 모를 무서움을 감쇄하며 그들을 향한 멸시감과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상승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제 땅의 주인들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며 변두리로 내모는 전략이 그것이다.

과연 오오와다는 방문자가 아니라 내지(內地) 여행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만주를 관통하고 있다. 예컨대 “오른쪽으로 갈라져 영구를/지나가면 요하나루터 있어/북경으로 향하는 여행객은/여기서 타면 매우 편리하겠네”(44연)

30) 만주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진 ‘만주 풍속(2)’(26쪽)에도 치파오 차림으로 변발한 채 서 있는 일가족(?)이 등장한다. 사진 중앙에 어른 셋, 아이 둘이 함께 서 있는 이들은 그 복색이 꽤 부유해 보인다. 조선인 역시 만주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무질서한 전통시장, 남루한 한복을 입고 촬영에 임한 후미진 촌락의 조선인들, 소가 끄는 달구지, 어떤 상자를 지게에 지고 나선 장사꾼. 이것이 『만한철도창가』가 제시한 조선인의 전부다. 물론 그들은 범어사(부산)나 광화문이나 선령당(평양)이나 하는 전통 건축물의 소개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던 부산항과 인천항, 경부선 열차와 노량진철교(현재의 한강대교)에 비하면, 전통으로 가장된 후진성 폭로 기제의 하나였을 따름이다.

나 “고전(苦戰)했던 여순도 우리는 보네/평화로운 여순도 우리는 보네/이것을 여행 선물로/가져가 말하리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57연)와 같은 구절을 보라. 이역(異域)을 유랑·관람하는 여행자의 감각과 동선을 전제한다 해도, 만주인의 구체는커녕 그림자조차 소거되어 있다. 만주인은 만주에 존재 하되 타자에 의해 그 실체가 부인되는 헛헛한 유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행객이 오히려 정주자를 만주에서 내쫓고 그곳을 제국의 내지로 아무렇잖게 재영토화하고 내면화하는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 차갑게 꿈틀대는 장면인 것이다.

이후 일제는 ‘만주국’이 증명하듯이 ‘토인’들을 추방한 자리에 그들이 상상하고 조립해낸 허상의 새 국민들, 바뀐 말해 신체제 의찬을 삶의 목표로 재정위하고 실천하는 열혈 신민들을 채워 넣을 것이었다. 따라서 『만한철도 창가』의 결구 “아아 청나라도 한국도/다 같이 친한 이웃나라/서로 가까이 지내며/풀어야 할 문제 무척 많네”(60연)라는 연대의 정서는, 그들의 ‘동양평화’라는 구호와 달리, 조선과 만주를 식민주의의 연찬에 올리기 위한 잘 꾸며진 말의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다.

Ⅲ.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 그 총력전의 정체

군가는 군인들이 영내와 전장에서 충성·애국의 다짐과 전우애·전투력의 고양을 위해 가창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군가는 병사의 정서와 감각에 예민하며, 건전·용감한 군인상(儻)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군가는 언필칭 ‘사이’의 형식이기도 하다. 일과나 전투의 사이, 다시 말해 그 시작 전과 종결 후, 아니면 그 막간에 노래 불림을 떠올려보라. 그렇다면 전선 총후의 총력전 상황에서 군가의 창출과 소비는 오히려 ‘총후’의 몫일 수 있다. 병사의 생탄과 훈육, 전쟁물자의 생산과 지원, 이른바 근로보국(勤勞報國)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장

으로 호출, 소환되어야 한다.

총력전예의 선동과 전투의식의 고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전쟁의 일상화와 승리의 필연성 강조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기 마련이다. ‘전쟁’에 술의 집중적 생산과 유통에 근거한 참전의 정당성 선전과 애국심의 양양은 국민들의 (위장된) 자발성 격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사실 러일전쟁과 관련시킨다면, 1906년 발 『만한철도창가』는 전적(戰跡)의 기억과 기념을 핵심에 두지만, ‘만한경영’을 위한 지리정보 제공과 이국 여행의 흥취 충족 또한 염두에 둔 2차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각종 군가는 창작과 유통 시기, 그 내용과 형식에서 훨씬 직접적이며 전장의 현실에 충실하다.³¹⁾ 군가란 본디 군인의 노래일 때 국민의 노래로 전유되는 법이니, 이 흐름을 충실히 포함하는 1차 텍스트의 성격이 필연적이다. 러일전쟁 당시의 군가가 보다 직접적인 감정 호소와 행동의 격발장치이며, 따라서 더욱 폭력적이며 무반성적 형식으로 소비되어간 연유 역시 이런 사실들과 관련된다.

본장의 테마를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으로 압축한 것은 러일전쟁 시기의 군가가 전선 ‘만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총후의 내지에서 활발하게 생산·유통·소비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³²⁾ 이런 현실은 병사는 전쟁의 실상을 얼마간이나마 객관화할 수 있지만, 각종 보도매체나 서신을 통해 전장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정보 조작과 왜곡에 활용되기 마련이며 또한 그런 현실에 거의 무감한 채 전쟁을 맞대면하게 된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환기한다.

여기 러일전쟁 때 널리 애창된 군가들을 모은 『일로전쟁기군가집』³³⁾이

31) 본장에서 다루는 『일로전쟁기군가집』 소재 15편의 군가는 1904년 12편, 1905년 2편(『旅順陷落祝捷歌(여순함락축첩가)』, 『弔祭唱歌(조제창가)』), 1906년 1편(『凱旋第九聯隊(개선제9연대)』)이 발행, 유통되었다. 1904~06년은 러일전쟁 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32) 이런 전제는 토엔 슈진(藤園主人) 외, 『일로전쟁기군가집』(국문학연구자료관, 2009)에 수록된 수편의 군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군가집은 병사와 군대의 보편적 상황과 정서보다 러일전쟁의 사후적 보고와 기록, 그것의 전파와 내면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33) 이 책에 실린 군가들은 일본 고치(高知)현 소재 고치시민도서관 ‘치카모리분고(近森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집 말미에 수록본 15편에 대한 간단한 해제(285~292쪽)가 첨부되어 있다.

있다. 이들 군가는 형식상 장편과 단편, 서사 중심과 정서 중심으로, 내용상 전선과 충후, 병사와 국민(여성), 기념(승리)과 애도(죽음)를 다룬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때로는 서로 대립적인 양 항목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러시아 정벌(征露)’의 의지와 충군애국의 정서인바, 이를 통해 ‘전선’과 ‘충후’는 표면상 매끄럽게 통합된다. 따라서 『정로군가』, 『일로전쟁대첩군가』, 『일본육군』, 『일본해군』 등과 『군신히로세중좌』, 『조제창가』, 『여자군가』 등을 따로 분별하는 일은 이들 군가의 성격 이해와 영향 분석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본고는 군가들의 대 사회적 영향력과 효용성,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파시즘의 예술화 문제를 ‘읽는 군가’와 작사자 오오와 다케키, 애도 및 여성 호출과 국민화의 틀로 함께 읽어본다.

우선 창가는 ‘唱歌’가 지시하듯이 노래, 특히 다수의 가창을 목적한다. 그 원류의 하나로 ‘찬미가(讚美歌)’가 지목되는 것처럼 창가의 형식과 내용은 서구 근대음악의 영향이 지대했다. 다른 악보는 차치하고라도 『만환철도창가』의 기차가 내뿜는 연기가 오선지를 흐르는 음표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조선에서의 창가와 찬미가 역시 그 사이에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동일한 기원과 영향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희귀한 가창 형식으로 남게 되는 군가는 제국 일본에서는 어떤 기원을 갖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가의 실질적 기원은 『新體詞選(신체사선)』(1886)의 편집자이자 일본소설의 문체 개량을 주장한 「言文一致論概略(언문일치론개략)」의 필자 아마다 비묘(山田美妙)의 「敵は幾万(적은 몇만)」이다. 해당 창가는 청일전쟁 당시 출정 병사를 환송하기 위해 활발히 불린 노래로 무엇보다 전의(戰意) 고양을 목표로 했다. 한데 흥미롭게도 「敵は幾万」은 아마다의 장편 무훈시(신체시) 『戰景大和魂(전쟁대화혼)』(6행 7연)의 일부를 발췌, 창가로 작곡한 것으로, 『國民唱歌集(국민창가집)』(1891)에 수록되면서 널리 가창·애송되기에 이른다.³⁴⁾

이런 일본 군가의 기원과 유행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34) 小川和佐, 2005,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81~84쪽.

첫째, 신체시에서 발원한 만큼 그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일종의 독물(讀物)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가집 앞의 악보는 노래의 양식에, 7.5조의 정형률은 노래를 포함한 율격적 낭송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 내용의 계몽성과 그 효과로서 애국심·충성심의 발현은 개인의 묵독(默讀)보다는 집단적 가창이나 낭송에 의해 훨씬 고조되었을 것이다.³⁵⁾ 둘째, 일본의 대표적 창가를 모은 『국민창가집』의 제명(題名)은 단연코 이중적이다. 하나는 창가의 향유층은 귀족이나 식자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래에 흥미를 가진 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음을 지시한다. 다른 하나는 육일승천의 제국³⁶⁾ 일본을 구성하는 근대적 인민, 아니 천황의 신민들이 불러 마땅한 노래임을 고지한다. 뒤늦은 근대문명의 성취, 탈아입구(脫亞入歐)에의 야욕, 그 가운데서의 청일·러일전쟁은 국민의 각성과 일체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해석은 크게 지나치지 않다. 신체시에서 군가로의 전유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국민(신민)의 형성과 그 제국적 확장은 개인 정서의 표출과 향유(신체시)를 집단적 열망의 발화와 확산(창가)으로 거리낌 없이 진화, 아니 퇴보시켜 나갔던 것이다.

일로전쟁 군가의 낭송 내지 독물(讀物)로서의 가능성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가능할 것인가. 전쟁의 심미화와 신민의 병사화, 그를 통한 일본적 동일성과 제국의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아래의 군가집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어떨까.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의 말을 빌리면, 이 군가집들에서 “국가를 위해 죽는 병사들이 출현하며 그 병사들의 심정과 일체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당 군가집을 통해 우리는 “그들(전몰자와 국

35) 이즈음은 유성기나 축음기가 부재한 시대였으므로, 가창과 낭송은 눈앞의 발화자와 청취자를 전제로 이뤄졌음을 기억하라. 그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이 서책이나 신문 등 활자매체에 실린 창가였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창가와 군가의 가창과 낭송, 나아가 개인적 독물로서의 가능성이 놀랄 만큼 확대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36) 『일로전쟁기군가집』은 그 표지를 토엔 슈진(藤園主人)의 『정로군가』에서 취했다. 거기에는 태양이 사방으로 널리 뻗는 배경(旭日) 아래 먹잇감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하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민-인용자)은 함께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면서 신체와 소리,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³⁷⁾ 것이란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림 9] 일본해군

먼저 『일본해군』이다. ‘국민창가’라는 노래의 성격은 그 대상과 향유의 주체를 병사 및 총후의 신민으로 함께 묶는다. 바다를 힘차게 가로지르는 함선의 위용은 전의(戰意)와 애국심 고취, 승전의 필연성을 널리 감염시키기에 충분하다. ‘만함’ 철도가 그랬듯이, 함선은 단지 전투에서 멈추지 않고 제국 일본의 세계만방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격정적으로 내면화한다. 뒤쪽에 “용장활발(勇壯活潑)하게” 부를 것을 지시하는 2/4박자의 악보가 첨부되어 있지만 과연 집단의 가창으로만 그쳤을 것인가?³⁸⁾ 군가의 처음부터 ‘산에는 포대

바다에는 함선’하는 식으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온갖 함선과 수병, 장성을 호명하고 그 전적(戰跡)을 서사화하는 방법은 잘 짜여진 이야기³⁹⁾의 면

37) 成田龍一, 「『國民』의 跛行的 形成 - 日露戰爭と民衆運動」, 小森陽一 外, 『日露戰爭スタディーズ』, 120쪽.

38) 일본의 연구에서 창가의 향유방식을 말할 때 흔히 애창(愛唱)되었다고 서술한다. 이것은 악곡에 따라 불렀음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정형율격에 따라 읽기, 곧 낭송 역시 포함될 것이다. 특히 전쟁의 시종(始終)이나 참전병사의 종군기를 총체적으로 다룬 ‘서사군가’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군가 상의 장편서사는 승전의 감격과 비극적 정경에 관한 정서의 공유 못지않게, 전쟁 상황과 제국의 위대함, 병사들의 충정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정보 공유를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작가와 독자, 병사와 국민 사이의 거리 좁힘과 일체감 형성은 한국 계몽창가의 향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홍정선의 지적에 방불하지 않을까 한다. “1900년대 시가들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낭송적 측면 때문에 독자와 작가의 거리를 없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가를 써낸 사람들과 시가를 ‘듣는 독자’ 모두의 자세가 텍스트 밖을 향해 있음으로써 양자의 거리를 없앴다. 이들은 낭송의 기능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텍스트의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확인을 텍스트 밖의 자명한 현실에서 받도록 유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밖에 서 있었다.” 홍정선, 「근대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자층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 1991, 79쪽.

39) 오오와다 다케키가 함께 지은, 『일본해군』의 쌍둥이 작품 『일본육군』은 아예 군가 가사를 ‘출진 - 적후 - 공병 - 포병 - 보병 - 기병(騎兵) - 치중병(輜重兵) - 위생병 - 개선 - 평화’라

모가 약여하다.

게다가 함포 사격과 어뢰 폭발 등 한창 전투 중인 거친 바다를 육일승천기를 휘날리며 가로지르는 함선을 묘사한 전쟁화(2편)⁴⁰⁾의 배치는 어떨까. 가창만을 목적한다면, 굳이 끔찍한 전투 장면을 호쾌하고 웅장한 진격 장면으로 변조·왜곡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창을 전제하되, 낭송하며 전쟁화를 감상하게끔 함으로써 천황제 중심의 국가주의를 마음껏 선전하고 구가하게 하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판단은 그래서 가능하다.⁴¹⁾ 예컨대 『일본해군』의 결사(結詞) “빛나는 국기를 꽃고서/해외만리 저편까지/진격하라 친보쿠(鎮北) 친쑤(鎮中)함/진격하라 친벤(鎮邊) 소코(操江)함”이 어디 해군만의 전망이자 목표이겠는가. 이것을 함께 노래하고 읽는 과정을 통해 일본인들은 천황에 열과 성을 다하는 충실한 ‘신민’으로, 국가의 사업과 발전 같은 공적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⁴²⁾ 그것이 제국 확장과 지속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고, 러일전쟁 후 만한 정복과 경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또 다른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다음으로 『군신히로세중좌』는 군가인 동시에 추모가다. 9연에 거쳐 여순항 봉쇄작전 중 전사한 히로세 중좌의 멸사봉공 과정을 노래한 군가의 좌표

는 일련의 전투 과정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또한 제반 병사들의 역할과 임무를 적시하고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을 향한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역시 치열한 전투 장면을 그린 전쟁화 2편이 수록되어 있는바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는 병사들의 고투가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40) 러일전쟁 시기 전쟁화는, 그 조작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사실성의 적시가 우세한 사진과 달리, 국가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한편 전쟁의 참상을 은폐하고 승전의 영광을 부감하는 상상화의 성격이 다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철, 「러일전쟁기 일본 전쟁화의 몇 가지 유형」, 『일본학연구』 29,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0 이곳저곳 참조.

41) 15편의 군가집 말미에는 인쇄와 발행일, 저작자와 작곡자, 발매처(또는 출판사)와 발매자, 인지를 붙이는 판권 소유란이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다. 군가 창작의 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 향유와 소비 주체를 강조하는 ‘국민창가’와 흥미롭게 대조된다.

42) 이런 관점에 설 때 가장 흥미로운 군가는 『征露之歌(정로가)』(大阪新報社編)다. 이 군가집은 ‘대관신보사’가 독자에게 현상 모집한 와카(和歌), 한시, 군가, 속요 따위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정부와 대중매체 발 위로부터의 계몽과 선전에 더해, 국민들은 애국심과 배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의 자발적 내면화와 발화, 그리고 대외적 발표를 스스로 수행해 갔던 것이다.

와 목적은 다음 첫 소절에 뚜렷하다. “살아서는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죽어서는 군신이 된 히로세 중좌의 공명(功名)은 무인(武人) 귀감의 꽃”. 이렇듯 숭고화된 히로세의 군인상(像)을 인상적으로 재현한 것이 [그림 10]의 좌상이다. 이 사진은 구도와 인물 형상 모두에서 각종 관공서와 학교에 내걸릴 법한 공적 초상 내지 추모시설에 봉안되었음직한 영정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히로세의 영웅적 삶과 죽음을 아는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 사진을 접하는 순간 정중한 애도와 존경심을 표하는 한편 그 멸사봉공의 정신을 새로운 제국 탄생에의 의지와 자발적



[그림 10] 군신히로세중좌

참여의 다짐으로 내면화하게 되었을 것이다.⁴³⁾

가령 “쏟아지는 탄환 개의치 않고/침몰해가는 선교(船橋)로/잃어버린 칼가지러 가는/중좌의 우뚝한 몸”은 이른바 ‘국민전쟁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선의 병사와 총후의 국민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군국(軍國)의 육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군가집 『군신히로세중좌』는 노래와 이미지, 율격과 문자, 서사와 감동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성의 형식으로 죽은 자와 산 자, 병사와 국민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쟁예술의 핵심목표를 어김없이 성취하고 있다. 여기에 날로 강화될 군국주의를 집단적으로 예술화하는 폭력적 내셔널리즘과 동아시아, 특히 만한의 제패와 지배를 향한 식민주의적 의

43) 전몰자 일반을 위해 헌사된 창가 역시 창작되었는데, 오오와다 다케키가 지은 『조제창가』가 그것이다. 책 표지에는 청일·러일전쟁 전몰자를 봉안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도리이(高鳥)와 ‘靖國神社’를 새긴 석탑, 일본육군의 창설자 오오무라 마사시로우(大村益次郎)의 동상을 찍은 사진 석 장이, 본문에는 봉안 및 추모 장면이 담긴 사진 너 장을 실고 있다. 해당 군가는 “9.주검은 땅에 묻혔어도/머무른 영령은 아국(我國)을 지키는 신으로 추앙되어/하늘과 땅, 그리고 번성하는 천황의 세상으로” “10.살아서는 명예 죽어서는 영광/뚫어가는 국위를 기념하여/지하에 영면하시라 용사여/산은 푸르고 물은 희구나”로 종결되고 있다. 서책 『조제창가』 한 권만으로도 러일전쟁 관련 전몰자들이 국가적 기억과 기념의 장(場)으로 공식 편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어렵잖게 엿볼 수 있다.

식이 울울하게 꿈틀거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아직 이들 군가와 오오와다 다케키의 연관성을 말하지 않았다. 독자의 짐작대로, 『일본해군』, 『일본육군』, 『군신히로세중좌』, 『조제창가』는 모두 오오와다가 작사한 군가다. 『조제창가』의 말미에는 “소년 제군이 가장 좋아하는 독물(讀み物)”이란 광고 제호 아래 『군신히로세중좌』, 『조제창가』와 함께 『旅順大海戰(여순대해전)』, 『決死隊(결사대)』, 『地理教育 東京電車唱歌(지리교육 도쿄전차창가)』가 나열되어 있다. 이 군가들과 철도창가의 집합과 결속이 얼마 뒤의 『만한철도창가』(1906)의 창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일본적 정체성과 제국 의식의 강화, 식민주의적 의식의 심화와 아동교육을 통한 그것의 미래화를 위해 창가와 군가를 국민 공유의 노래로 통합, 제공할 줄 아는 창가의 일인자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창가의 병사화, 바꿔 말해 창가와 신체시로 대표되는 근대시가의 전쟁예술화 혹은 군가화가 오오와다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중환의 빈안소설 『장한몽』의 원본 『금색야차(金色夜叉)』의 저자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와 더불어 켄유샤(硯友社) 핵심 멤버로 활약한 야마다 비묘가 신체시에서 군가로의 변화를 개척한 인물이었음은 이미 지적했다. 켄유샤가 서구문화의 맹목적 추구에 반대하여 일본 고전문학의 전통을 새롭게 가치화한 국수주의적 경향의 문학 결사였음을 감안하면, 그들이 주요 저자였던 창가와 신체시, 군가의 파행적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근대시가의 파행적 행보는 그러나 성년의 국민을 넘어, 『만한철도창가』와 『조제창가』 광고 군가들이 예시하듯이, 아동용 지리 교재 및 음악 소비재로 공식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문제적이었다. 과연 미래의 황군 육성은 아동문학가의 과제이기도 했으니, 일본 아동문학의 선구자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군가 작사자로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메이지 37년(1904) 기원절 아침에 작사했음을 표 나게 강조한 『征露軍歌 其一 旅順の海

戰(정로군가 1 : 여순해전』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작품에는 벌써 가미가제(神風)의 상상력과 그 믿음이 약여한바, 서두 “신께서 지키시는 일본의/적은 누구인가? 저 러시아/참으로 러시아의 무례에는/신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구나”라는 가사를 보라. 물론 이 한 편의 작품을 두고 이와야를 전쟁예술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로 크게 비난할 일은 못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편집한 아동잡지 『少年世界(소년세계)』(1895년 창간)를 읽으면서 그가 아동을 위해 새로 개척한 ‘오토기바나시(お伽噺 : 옛이야기)’나 구연동화⁴⁴⁾를 듣고 자라온 아이들에게 이와야의 군가는 교육적이기에 앞서 위험한 노래이자 문자였다. 그의 군가는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고 맹목적 승전의식과 배타적 내셔널리티만을 고취시키는 편향된 노래가 아닐 수 없다. 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인 아동들과 부모들은 군가에 새겨진 침략주의적·식민주의적 의식에 관한 성찰의 겨를도 없이 그것을 미래의 세계관으로 아낌없이 내면화해 갔을 것이다. 대동아전쟁기 가미가제의 명령은 메이지 시대 아동, 다시 말해 ‘소국민’의 핏줄과 영혼을 타고 서서히 확산된 저 신국(神國) 의식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화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이런 사정에서 말미암는다.

다음으로 『여자군가』의 경우다. 국가를 수호하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총력전 아래의 ‘국민’ 서사, 그러니까 ‘총후’의 표면과 심층을 파고들 때 아동/소년 이외의 문제적 대상을 꼽으려면 여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해결의 장(場)에서 떠도는 중군위안부 문제라든가 점령된 국가/지역의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야수적 폭력은 우뚝 발기한 팔루스에 포획된 여성의 비극과 무력함을 표상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팔루스를 공유하고 있는 제국의 여성들은 어떤가? 그들 역시 제국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44)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세계』는 육당 최남선의 『少年(소년)』에, 그 동화들은 방정환의 아동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는 『소년세계』와 『세계오토기문고』(1912) 등에 조선의 옛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편 1910년대 조선과 만주로 구연(口演)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만한 인물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오타케 키요미(大竹聖美), 2001, 「두 사람의 소파(小波) :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와 方定煥」, 『아동문학평론』 26권 1호, 한국아동문학연구회 참조.



[그림 11] 여자군가

합성과 보국적 육체로의 지향이 기대되는 순응적 실존에 걸려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자군가』의 존재는 여러모로 유의미한 논의와 담론의 생산지로 귀착된다는 느낌을 준다.

[그림 11]은 『여자군가』의 표지인데, 그 가외(可畏)의 표제와 달리, 각종 이미지와 문자의 모양 및 배치가 꽤나 낭만적이다. 철선이 전투를 벌이는 마당에 범선은 무엇이며 또 ‘군가’에 단아한 꽃들의 장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성용 노래임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

이겠으나, 우리는 표지에서 벌써 여성의 어떤 역할과 처지가 심미화·낭만화될 것임을 언뜻 짐작한다.

『여자군가』는 그 편집과 내용에서 다른 군가와 확연히 구분되는 면모가 있다. 첫째, 권두언의 내용. “군국의 숙녀와 영양(令嬢)에 주는 글로, “충군 애국의 정(情)과 “정의무용(武勇)의 열혈”을 그녀들 역시 드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여자군가』는 장편 창가의 양식을 취하는바, 「집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간호부」⁴⁵⁾ 「오늘의 국기(일장기), 「상부련(想父戀)」의 순서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그 정서와 서사가 서로 다른 각 장마다 독립적인 악보 5장을 따로 배치하여 색다른 효과를 자아내는 방법은 『女子軍歌』에만 보이는 미학적 특징이다. 어떤 군가들처럼 전쟁 사진과 전쟁화를 싣는 대신 가집 중간 중간에 종류별 전함 세 척을 자그맣게 점묘한 것도 돋보이는 미감이다.

각 장의 제목으로도 얼추 짐작이 가지만, 앞의 4편은 ‘가정’에서 ‘보국’으

45) ‘여자군가’류는 러일전쟁 때 처음 등장하지 않았다. 이미 청일전쟁 때 『婦人從軍歌(부인종군가)』(加藤義清 작사, 奥好義 작곡)가 제작되어 널리 불렸던 것이다. 이 군가에 청일전쟁 당시 전투현장의 야전병원에 파견되었던 일본적십자사 간호부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小川和佑,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90~91쪽.

로 확장되는 여성의 의식과 역할을, 나머지 1편은 전장의 남편 혹은 아버지를 여인 여성이 취할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요컨대 일상의 현모양처(賢母良妻)에서 군국(軍國)의 아내 - 딸로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변모가 서사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사 세 꼭지를 선택하여 그 실상과 의미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몽매 야만의, 러시아를,
천하를 위해, 징벌하라는,
천황의, 분부 말씀
나가세, 전진하세, 대장부여
집 지키는 일은, 우리들이라네

—「집은 우리가 지킨다」 부분

자자, 우리 자매끼리,
어머니 도움 받지 말고,
실을 짓고, 직물을 짜서,
만든 봉대와 방한포(防寒布),
황군(皇軍)의 신승을,
알아차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우리도 나라를 위해」 부분

앞 절에서는 ‘가정은 부인이, 바깥일은 남편이’라는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몰며 그들과의 전쟁이 천황의 분부임을 뚜렷이 하는바, 이로써 전쟁의 명분과 윤리성은 그 타당성을 확보한다. 총후의 일차적 목표는 병사와 남자들을 대신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가 국가의 그것이며 전장의 병사를 보위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의 확대와 급박성은 가정 지키기만을 여성의 책무로 한정시키지 못한다. 전선을 지원하는 ‘근로보국’이 여성의 몫으로 견인되었음을 「우리도 나라를 위해」는 또렷이 보여준다.

이것이 단순히 독려의 목소리가 아니었음은 ‘애국부인회’ ‘일본적십자사’

(「간호부」가 이와 관련된)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여성들은 근로지원 외에도 부상병 간호와 지원, 전몰자 가족을 위한 모금과 위문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총력전, 다시 말해 ‘국민전쟁’의 일익을 명랑하게 담당했던 것이다.⁴⁶⁾ 자국의 병사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민족 감정의 지평에서나 일반적 박애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진정한 문제는 군국주의(“천황의, 분부”)의 확장 속에서 ‘현모양처’라는 범속한 풍속과 이념이 변질되어 그녀들을 병사화·전체화하는 파행적 국민화의 회로 속에 가뒀버렸다는 엄혹한 사실에 있다.

진작부터
 천황께 바친 이 목숨,
 돌아오길 기다리지 말라시던,
 아버지 말씀 잊을 수 없건만,
 섬멸하여, 러시아를,
 황군(皇軍)의 비단옷 입고,
 돌아올 봄은, 아버지의,
 기다릴 길 없는 귀환에 애석함만이.

— 「상부련」 부분

화자는 아내여도, 딸이어도 상관없겠다.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가장(家長)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듯하다. 천황을 위해 바친 목숨이니 오히려 명예이자 영광의 죽음인 셈이다. “황군의 비단옷”이 그것을 뜻하는바, 그러나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의 영혼과 육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저 애석함은 죽음에 대한 원망이기보다 승전의 명예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해석해야 옳겠다. 당연히도 「상부련」은 가장 친밀한 가족의 목소리를 빌려 전사자에 대한 숭배를 올리는 한편 그들의 희생이 제국의 승리와 충후 안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노래인 것이다. 그러니 딸과

46) 飯田祐子, 「婆の力 - 奥村五百子と愛國婦人會」, 小森陽一 外, 『日露戰爭スタディーズ』, 133~135쪽.

어미는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거기 바쳐진 국가의 정중한 애도와 이웃의 존경에 힘입어, 애국부인회나 적십자회의 단원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군국의 아내와 딸의 이상적 지향점과 전후 현실에서 적극 권장되던 ‘현모양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몰자 가족의 현실이었는가? 내지(內地) 어딘가에 은밀하게 나돌던 반전(反戰)이나 비전(非戰)의 목소리는 차치하고라도, 전몰자 가족의 슬픔과 고통, 이른바 “과부의 눈물”은 과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전쟁은 부부의 은애(恩愛)를 끊고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에 의한 가족의 파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후 국가의 안정과 회복, 번영에 장애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들의 희생을 향한 국가의 애도와 각종 단체의 지원은 “애국의 하중”이 촉발한 현실의 불안과 고통, 미래를 향한 전망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적 구원의 일종이 아닐 수 없다.⁴⁷⁾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가족의 파탄과 비극은 패전국 러시아에서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슬라브주의를 내세운 제국주의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일제 군국주의와 죽음과 비판의 몫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러일 양국 누구도 기억하지도 애도하지도 않았던, 조선과 만주의 ‘옥련’(청일전쟁 시 평양에서 줄지에 고아가 되었던!)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러·일에게 삶을 저당 잡힌 식민지의 ‘토인’들은 국가의 공식적 애도와 위령탑의 건립 하나 없이, 러·일의 병사들이 밟고 지나간 ‘버려진 - 빼앗긴 땅’에 묻혔을 따름이다. 이들의 비탄과 눈물, 죽음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애도 없이는, 다시 인용컨대, “아아 청나라도 한국도/다 같이 친한 이웃나라/서로 가까이 지내며/풀어야 할 문제 무척 많네”라는 제국의 목소리는 채울 길 없는 텅 빈 기표로 ‘만한’을 어슬렁거리는 허언(虛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47) 이상의 직접 인용은 大浜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帝國への歩み』, 212쪽.

IV. 만주의 부상, 만주의 실종 -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러일전쟁을 둘러싼 『만한철도창가』와 각종 군가에 대해 그것이 끼친 만주 및 일본에의 영향을 주목해왔다. 만주로의 원심력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주의 시선의 노골적 과시를 전경화해 갔다. 일본 내 지로의 구심력은 ‘일본적인 것’의 정체성 강화와 그 표상으로 천황제 가족 국가의 출현과 안착을 가속시켰다. 양자의 강화는 전쟁의 참상과 국민의 일상 파괴, 타자 억압의 침략주의 같은 폭력구조를 은폐하는 한편 그 자리에 애국주의와 자민족의 우월성을 파종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윤리성을 제국주의 독단의 만국공법으로 대체하기에 이른다. 그럴수록 ‘만주경영’의 욕망과 미래상이 급속도로 부상했지만, 만주의 역사와 삶, 그리고 미래는 저 폭력적·군사적 모더니티의 뒤안으로 어김없이 실종되어 갔다. 폭력의 시대에 착종된 당대의 한계를 감안해도, 전쟁 뒤의 그림자, 이를테면 전몰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 실업률의 증대, 진보적 사상의 억압 등만 포착되고 ‘만한’의 타자화와 식민화로 대표되는 이토(異土)의 소외 문제는 거의 무시되었다는 사실은 일제의 전쟁책임론을 더욱 강화시키는 바 있다.

물론 이 말은 이 당시 일본 내의 반전(反戰)론 내지 전쟁회의론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크게 구분된다. 잘 아는 대로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반전론, 러일전쟁 외중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전쟁 후 본격화되는 사회주의운동과 간혹의 민중소요, 노동운동, 그 결과로서 다이쇼데모크라시로의 행보는 또 다른 의미의 일본 ‘국민’을 상징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당대 일본에 제국의식에 기반한 ‘국민’의 탄생과 병행하여, 특정 집단의 권력과 이익에 대항하는 개혁적·저항적 국민이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군국주의의 강화 속에서도 일본 사회가 시민권의 확보와 확장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다면 후자의 존재와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형성은 균형적이기보다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다.

저런 가우뚱한 균형의 대내적 형편과 달리, 이토(異土)의 타지를 향한 시선은 배외주의적 ‘국민’ 의식을 배경으로 더욱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강화해 갔기 때문이다.⁴⁸⁾ 본고는 구체적인 문자 기록이나 서사의 도움 없이도 『만한철도창가』와 각종 군가의 전쟁 사진 및 그림만으로도 이런 사실을 즉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러시아, 곧 서구와의 전쟁이 동양의 수호와 평화 유지를 위한 대담한 희생전략이었다는 ‘만한’을 향한 대외 담론이 일제의 침략적 배외주의를 얼마간 은폐하였다. 하지만 ‘동양평화론’은 결국 식민지로 전략한 ‘만한’의 뒤늦은 주체 각성과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에 의해 그 허구성의 폭로를 면치 못하였다.

물론 엄밀히 말하건대, 적어도 1945년 일본의 패전 전까지 침략주의와 동양협화(協和)의 배리적 정책이 ‘만한’의 영토에 더욱 구조화되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에 보다 부합한다. 그렇지라도 제국에의 협력에 때로는 강제로 또 때로는 순순히 참여한 『만한철도창가』 속 ‘만한’의 토인들이 자기 영토의 가장 낮은 지대에서 그 침략의 폭력성과 동양평화의 허구성을 동시에 살아내고 또 실증했다는 것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간혹의 저항과 소요를 불러일으키며, 일제의 지배와 정책에 골치 아픈 균열과 파행을 야기하곤 했다. 그 집단적 싸움은 거의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와 서로 다른 이념에 기반한 국민(↔인민)국가에의 열망이 서서히 그러나 힘차게 성장해갔음을 한국의 근대사는 가감없이 보여준다. 러일전쟁기 『만한철도창가』와 각종 군가에 표상된 만주(조선도 포함)의 부상과 실종이라는 모순된 사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진실과 미래의 징후적 제시에 존재할 것이다.

투고일 : 2013년 11월 25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5일

48) 앞 단락과 현 단락의 러일전쟁 시기 일본 국민의 양가성과 파행성에 대해서는 成田龍一, 「『國民』の跛行的形成 - 日露戦争と民衆運動」,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128쪽 참조.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大和田建樹, 1906, 『滿韓鐵道唱歌』, 金港堂書籍.
藤園主人 外, 2009, 『日露戰爭期軍歌集』, 國文學研究資料館.

2. 논문 및 단행본

- 구인모, 2009, 「일본의 식민지 철도여행과 창가-『滿韓鐵道唱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6.
김용철, 2010, 「러일전쟁기 일본 전쟁화의 몇 가지 유형」, 『일본학연구』 29, 단국대 일본연구소.
박진한, 2006, 「일본의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손순옥, 2010, 「메이지 시대의 반전시 연구-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33, 세계비교문화학회.
유용태, 2004, 「환호 속의 경종 : 전장 중국에서 본 러일전쟁」, 『역사교육』 90, 역사교육학회.
임성모, 2006,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사학회 편, 『일본역사연구』 23.
최현식, 2010,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화사연구』 43, 민족문화사학회.
홍정선, 1991, 「근대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자층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권혁희, 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김순전, 2012, 외,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國語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서기재, 2011,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석화정, 2007, 『풍자화로 보는 러일전쟁』, 지식산업사.
진진성 외, 2009,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닝왕, 이진형 외 역, 2004, 『관광과 근대성 : 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김경자 역, 「일본 : '기억의 장'으로서 러일전쟁」, 『역사비평』 2004년 겨울호.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박선영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 오오타케 키요미(大竹聖美), 2001, 「두 사람의 소파(小波) :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와 方定煥」, 『아동문학평론』 26권 1호, 한국아동문학연구원.
- 하라다 게이이치(原田敬一), 최석완 역, 2012,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 小川和佑, 2005,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 片山慶隆, 2009, 『日露戦争と新聞』, 講談社.
- 井上祐子, 2012, 『日清・日露戦争と寫眞報道』, 吉川弘文館.
- 横山篤夫, 2012, 『兵士たちがみた日露戦争』, 雄山閣.
- 大浜徹也, 2003,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帝國への歩み』, 刀水書房.
- 小森陽一, 2004,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 Abstract ■

Meaning of the conquest of Manchuria as expressed in the
Changga and Military Songs of Japanese Imperialism
- Focused on the Russo-Japanese War -

Choi, Hyun-Sik

This article targets the Manchuria of the Russo-Japanese War period ; and, second, it reviews the actual aspect and effect of the railroad Changga and military songs of Japan. Third it looks into the role and value of the Changga and military songs for arousing an all-out war effort inside Japan. The *Manban railroad Changga* by Oodawa Dakeki is a song primarily created for children's geography education ; however, this work focused on "Manhan management" and the offering of geographical information for its continued existence. With this aim, this article examined intensively the victory and hard battles of Japanese soldiers in Manchuria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lso the article examines the way of promoting the pre-modernistic pattern of the lives and customs of Manchurian people before civilization spread widely. Ultimately the *Manban Railroad Changga* was an artistic mechanism that enhanced the superiority and colonialism of the modern civiliz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t justified the invasion and rule of the colony prior to it becoming a product of tourism. Many military songs were created and distributed to boost the morale of Japanese soldiers and mobilize people for all-out war and to enable Japan to defeat Manchuria and extend Japan into the world through mobilization. Military songs are usually sung on the field of war ; however, they also contribute to the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of the war dead. In particular, *Song for female soldiers* functioned as a song that plays a variation of the ideology of the "good wife and wise mother" appropriate for modern daily life to

mobilize the women of a nation at war who labor and fight at the rear. Such an all-out war of the empire was like fascist violence that excludes and distorts the history and lives of Manchurian people in the battle field of Manchuria.

Key words : Manhan Railroad Changga, military song, Japanese imperialism, the Russo-Japanese War, Manchuria, tourism, total war, media